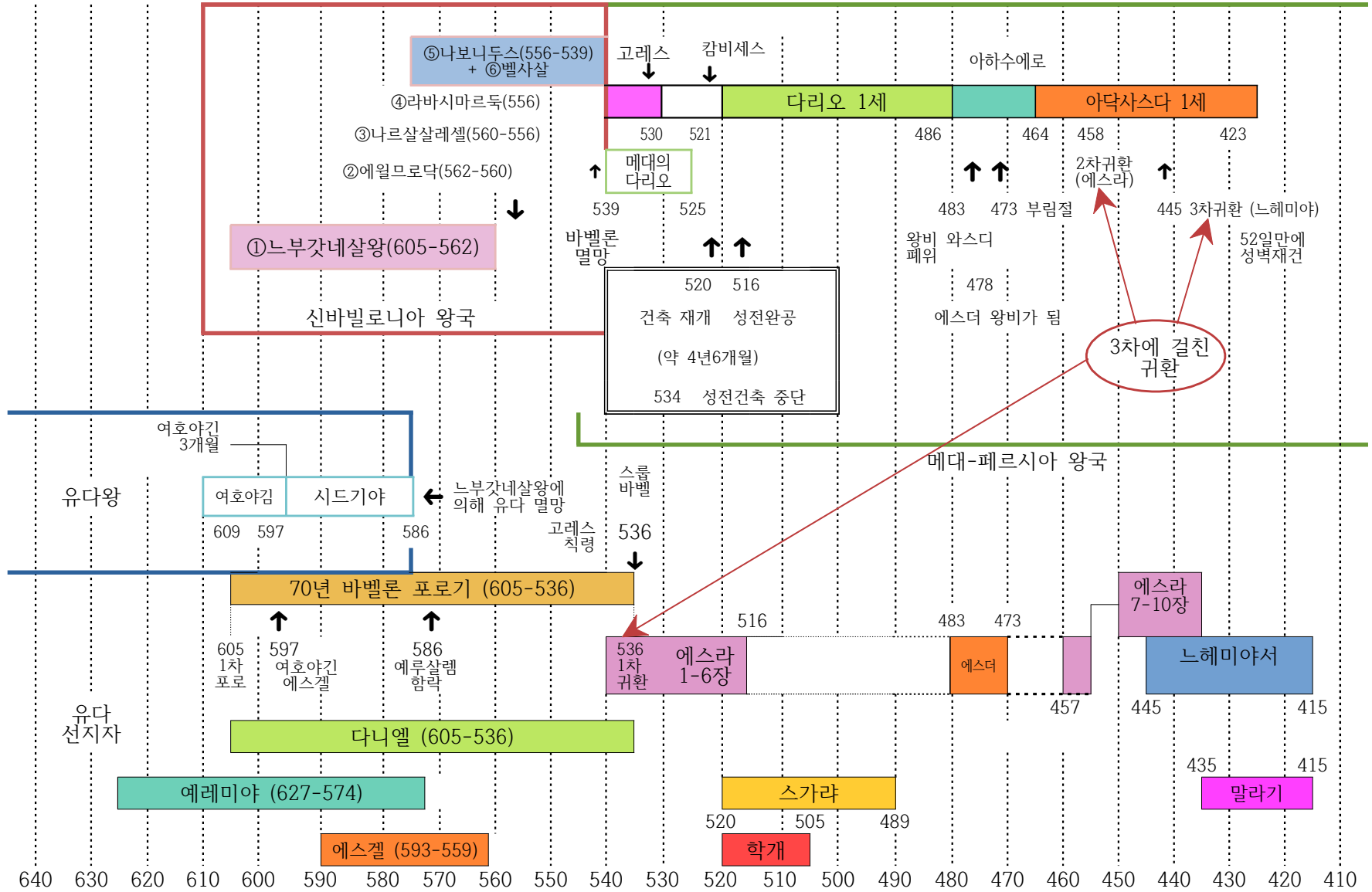


에스더(Esther) 개관

1. 한 눈에 보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시대 (Precept Ministries International 2010 참조)



2. <에스더 (Book of Esther)>의 시대적 배경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바사왕국)의 통치자였던 아하수에로(486-464 B.C.)의 통치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성경적 명칭의 아하수에로 왕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원래의 페르시아 이름은 크샤아르쉬(Khahayarsh)이고,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Xerxes)이다.

에스더서는 기원전 483년 왕후 와스디(Vashti)의 폐위로부터 기원전 473년 부림절(Feast of Purim)의 기원이 되는 사건의 기록을 함으로 약 1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3. <에스더>의 기록 목적과 핵심 구절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세계 역사에도 주인이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의 섭리(providence)를 잘 드러낸다. 이는 세속사(secular history)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다. 즉 본 책에서 신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에4:13-16)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신앙적 결단 (→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1) 하나님의 주권의 선하심과 최종 승리

(고후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 (실제적 실천)

(롬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4. <에스더의 내용구성>

	첫 부분 (1-2장)	둘째 부분(3-7장)	셋째 부분(8-10장)
주요 내용	왕비가 된 에스더	하만의 계교와 모르드개의 승리	유대인의 승리
핵심주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주권의 최종 승리

5. 각 장의 주요 내용

(1)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왕후 와스디의 폐위

(에1:3)왕위에 있는 지 제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v.11-12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v.19-20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2) 왕후로 선택된 에스더 (히. 하사닷)

(에2:6-7)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v.17-18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3) 아하수어로 왕에 대한 모반 계획이 발각됨

(에2:21-22)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4) 유대인을 박해하는 조서 (→ 3장에 하만의 등장)

(에3: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어로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v.8-9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율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 유다의 법과 관습이 반(反)페르시아적이라고 모함함.

(5) 곤경에 처한 유대인들과 믿음의 결단 (4-5장)

(에4:3)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굶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개의 격려) v.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v.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의 결단) v.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요청) 에5:4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6) 모르드개에게 상이 내려짐. 하만이 죄를 받음 (6-7장)

(에6: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에7:3)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v.10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7) 부림절의 제정과 기념 (8-10장)

• 유대인에게 내려진 호의적 조서 (8장)

v.11-13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 구원의 축제 (9장)

v.25-27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에3:7) 아하수어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부르

↳태양력으로 2-3월 (⇔ 부림절 아달월 14,15일)

• 유대인들의 최후 승리 (10장)

v.2-3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어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